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사단법인 한국계육산업협회(가칭)

발행 및 편집인 : 김 홍 국

137-0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TEL(02)536-9855~6 FAX(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02)263-3598, 3599

제2권 제2호 통권8호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계육산업의 안정기반은 종계의 생산성에 있다

문이 활짝 열린 시장상황에서 조금씩 지는 것이 계육산업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늦은감은 있으나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알고 이를 잡는다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위생적이고 규격에 맞는 크기와 저렴한 닭고기를 우리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때 지금의 어려움이 해결 될 것이다. 이러한 상품의 생산과정은 거슬러 올라가 종계의 높은 생산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높은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많은 질병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에 대한 정보나 이론적인 지식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론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적든 크든간에 농장의 청정화를 위해 All-in All-out 할 수 있도록 격리된 사양농장으로 디자인하여야 하며 농장내는 청정지역으로, 농장의 지역은 오염지역으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종계의 생산성은 일부 농장을 제외하고는 후발국인 동남아국가의 종계 생산성보다 훨씬 못하다. 중국과 태국에서 월간 대일본 수출 닭고기는 2만 5천톤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대 일본 수출이 가능한 것은 일본인의 기호에 맞도록 위생적이며 규격에 맞게 생산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규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계육생산 조건과는 다른 여건하에 있다고 하지만 무엇이 계육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를 똑바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들은 자기소유의 토지에 사업장을 조성하기 힘든 것도 오늘의 현실이다. 축사 건축계획은 무조건 반대 또는 저지라는 새로운 집단이주주의가 유행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남의동네 불구경보듯 하니 우리들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우리나라 임야는 국토의 65%이며 그중 29%가 국공유림이다. 이를 잘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 또는 불하하여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종계장으로 사용토록 외국처럼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 되어야 한다.

미국의 어떤 양계전문가의 말이 생각난다. 한국양계의 생산



배 선 채

(주)중원농장 대표이사

성 향상은 차단방역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어려운 일이라고 한 말을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완벽한 차단방역으로 격리된 종계장이나 브로일러 농장으로 조성하고, 고도의 사양기술인력을 양성 투입해야 되고,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합리적인 사양환경시설을 갖춘다면 오늘의 현실은 옛날 이야기로 돌아갈 것이다. 미국과 동남아국가들의 브로일러종계의 최고능력은 HH초생추 150수 이상으로 우리나라 평균치의 50% 이상 더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차단방역이 원칙적으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리에 입각한 농장설계와

잘훈련된 인력에 의한 원칙적 운영의 결과이다.

'94년 여름 혹서기의 영향을 받아 종란을 긴급 수입한 점과 빛나간 예측으로 초생추의 구득난이 반복되는 점은 올바른 준비가 없는 까닭이라고 본다. 막대한 투자로 준비된 도계장시설이 브로일러 생산의 차질로 처리가 중단되는 일은 업체는 물론, 업계 전체의 막대한 손실이다. 1만수의 브로일러 초생추를 입추하였다면 95%의 마리수가 목표체중 80%의 균일도로 처리장에 반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양계업계는 3D 산업에 속해있는 관계로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인재난도 겹쳐졌다.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기술력의 준비도 함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사양시설과 설비는 첨단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인재가 없고 생산현장의 기술력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의식에도 문제가 있으니 전문인력양성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끝으로 우리나라 사료업계도 변화가 있어야 하며 만일 위생 문제를 이제 걱정거리에서 제외된 부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걱정하며 적극 도전하는 업체로부터 시장을 빼앗길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생각만하지 말고 적극 행동에 옮겨야 하며 우리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누구도 그 행동대열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